

# 장수군, 공공시설물 개방

###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에 체육시설·경로당 등 방역지침 준수 운영

장수군은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에서 1.5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공공도서관, 체육시설, 경로당 등의 공공시설물을 개방한다.

17일 장수군에 따르면 개방되는 관내 시설물은 ▲정인승기념관·전해산기념관 등 현충시설 ▲장수향교·논개사당·가야흥보관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장수 작은 목욕탕 ▲대곡관광지 일부 객실 및 도깨비전시관 ▲공공도서관 대출서비스 지속운영 및 열람실 좌석 50% 개방 ▲청소년문화의집 및 공동육아나눔터 ▲방화동·와룡자연휴양림 ▲장수 승마레저파크 ▲읍·면 생활체육관, 게이트볼장, 축구장, 탁구장 등 문화·체육·관광 공공시설물이다.



장수군은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에서 1.5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공공도서관, 체육시설, 경로당 등의 공공시설물을 개방한다.(장수향교 모습)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만큼 군은 방역관리자 지정 및 방역관리일지 작성, 마스크 착용, 외출전 양치질 및 손 씻기 등 이행 후 공공시설물 방문, 2m(최소 1m) 거리두기, 발열, 호흡기 증상(인후통, 기침, 호흡곤란, 두통, 근육통 등) 있는 이용객 출입제한, 방역물품 비치(손 소독제, 마스크 등) 및 실내소독 등 철저한 예방 세부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운영한다.

또한 장수군은 자체적으로 ▲타 지역 경조사·교육 등 행사 참여 자제하기 ▲타 지역 방문 자제하고 관내 관광지, 역사유적 탐방하기, ▲타 시도(전북 외)방문 후 능동적 자기격리 실천하기(14일) ▲타 지역 방문자가 참가하는 행사 및 교육 참여 자제 ▲관내 정례식장 및 결혼식장 음식제공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장수형사회적거리두기 지침을 마련하고 실행 중이다.

전 실·과 부서별 코로나19 방역 지침 준수 점검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가격리 담당자를 지정해 물품지원 등 철저한 관리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장영수 군수는 "코로나19는 방심하는 순간 언제든지 다시 확산될 수 있다"며 "군민들의 철저한 방역수칙 이행을 계속해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청정장수를 지키는데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금강변 관광자원화 본격 추진

### 무주군, 실시체계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2024년까지 190여억원 투입

무주군 '부남 금강변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 추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지난 17일 실시체계에 따른 주민설명회가 개최됐다.

부남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된 이날 설명회는 부남 금강변 관광자원 활성화사업 세부내용과 설계방향을 공유하고 사업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관련 공무원과 운영사, 주민 등 30여 명이 참석해 관심을 모았다.

무주군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발열여부, 발생지역 방문 이력 등에 대한 확인과 출입명부 작성, 참석자 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에 철저를 기했다.

체육공원 일원을 사람들이 즐겨 찾는 관광지로 만들어 침체된 지역과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이날 주민설명회 결과를 검토해 4월 중 기본 및 실시체계 용역 중간보고를 마치고 8월까지의 인허가 절차 이행 및 실시체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무주군은 "무주의 자랑 금강 주변을 자연친화적으로 자원화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부남면 금강변

190여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부남면 대유리 인근에 금강레포츠센터와 캠핑장, 생태테마공원, 래프팅계류장, 전망대, 에코로드(출렁다리)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 무주군, 반딧불 농업대학 제13기 수강생 모집

무주군은 '건강가득 소득농업' 실현에 앞장 설 전문농업 경영인 양성을 위해 2021년 반딧불 농업대학 제13기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과정은 사과과와 포도와 2개 과정으로 과정별 50명씩 총 100명을 선발(선착순)한다.

반딧불 농업대학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강소농육성팀(320-2847)으로 문의하면 된다.

무주군에 따르면 반딧불 농업대학은 지역농업발전과 농업인들의 전문 경영능력과 기술력 향상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2009년 개교 이래 총 1,545명이 배출돼 무주농업 발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강소농육성팀 하현진 팀장은 "대면교육을 원칙으로 하지만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황 등의 이유로 집합교육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시간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무주군 특화작목에 맞춰 새롭게 구성한 교육인 만큼 관내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대상은 무주군민(최근 3년 간 농업대학 수료 이력이 없는 군민 우선 선발, 단, 농업대학 수강신청 후 졸업하지 못한 수강생 선발에서 제외)으로 입학에 원하면 오는 3월 5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이나 농업인상담소, 농업기술센터 강소농육성 담당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무주군 반딧불 농업대학 과정은 3월부터 11월까지 총 9개월 간 진행이 되며 사과과 강의는 매주 화요일(총 21회), 포도과는 매주 목요일(총 23회)마다 실시(오후 2시~6시)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지역 소식 통

### 진안장학숙 시설 환경 정비 추진

진안군 진안장학숙(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은 입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설 및 환경 정비 추진에 나선다.

장학숙은 지난 16일 '2021년도 진안장학숙 입학생 선발 심의회'를 열어 남학생 29명, 여학생 37명을 선발하고 선발된 학생들은 3월 1일부터 입소한다.

이에 따라 장학숙은 입학생들이 많았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4인실을 2인실로 변경하고, 4층에 생활실 2실을 더 추가 설치한다. 또한 냉·난방기 필터 청소, 매트리스 소독, 커버·패드 세탁, 침대 프레임 보강, 욕실 천장 교체, 생활실 대청소 등 시설 및 환경 정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 무주군 보건의료원 맞춤형 한방보건실 운영

무주군보건의료원은 2월부터 12월까지 관내 등록 장애인과 금연 등록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한방보건실을 운영한다.

보건의료원 3층 한방보건실에서 운영하며, 만성질환관리사와 금연상담사, 공공보건연수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한의약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상자에게는 개인별 증상에 따른 한방침, 한약제 처방 등의 한의약 서비스가 제공된다. 건강생활 분야별 한의약적 양생법 교육과 한의사, 만성질환관리사 등 분야별 전문가와 맞춤형 상담 등이 이뤄질 계획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등록 장애인은 매주 목요일 9시 30분부터 11시 30분에 보건의료원 3층 한방보건실로 방문, 참여하면 된다. 금연 등록자는 매주 화·수·목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운영되며 금연상담사와 상담 후 참여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의료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팀(320-8209, 8238)으로 문의하면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진안군 부귀 보건지소·진료소 쾌적해진다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본격 추진

진안군은 17일 한국형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국토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부귀 보건지소와 능금 보건진료소 2곳에 대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공공건축물로 기후변화

에 대비한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향상하고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는 등 온실가스 저감을 유도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군은 2020년 공모를 통해 총 4억 7,8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고 성능 창호, 단열재, 외벽단열 등의 리모델링을 지원한다. 사업은 그린 리모델링 센터로 지정된 한국토지주택공

사(KH)를 통해 올해 2월중 실시계획 용역과 입찰을 거쳐 6월 준공할 예정이다.

이일욱 보건소장은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부귀지소 및 능금보건진료소의 에너지 효율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쾌적한 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기후 변화에 대비해 공공시설부터 앞장서 지역의 녹색 건축 전환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장수군의회 임시회 의원 발의 조례안 3건 본회의 통과

장수군의회 김종문 의원과 유기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지난 16일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의원발의조례는 김종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수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과 유기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수군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으로 총 3건이다.

그중 '장수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처우개선수당 지급 근거마련,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후 최일선에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에 선과 지위 향상에 큰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조례를 대표발의한 김종문 의원은 "본 조례의 시행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수군의회의는 군민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